

제 2전선 두날개 필리핀선교센터

Manila, Marikina Twowings Mission Church of Philippines

SAME WORD, SAME HEART, SAME MIND, SAME FRUIT

선교는 사랑입니다. 한국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지의 안위와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필리핀 아웃리치도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되어 아쉬운 마음이지만, 현지에서도 예배와 기도 모임 때마다 잊지 않고 가족, 선후배, 전주동부교회 그리고 두날개네트워크교회와 성도님들, 두날개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담대히 이겨 내시고 건강하시길 기도로 응원합니다.^^

1. 2020년 두날개국제컨퍼런스 참석과 은혜

지난 1,2월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현지인들과 2020년 두날개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을 포함해 약 1주일동안 많은 분들의 섬김과 후원, 그리고 두날개선교회의 대표이신 김성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강력하고 감동이 넘치는 메시지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매 시간마다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컨퍼런스 기간 중 간증을 통해 현지 사역자 올란과 함께 선교보고와 비전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강단에 섰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많은 분들의 격려로 오히려 전하는 저희가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현지 간사들과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해졌고, 세계 선교비전 성취에 대한 마음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2021년에는 더 많은 현지인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세례식, 리더캠프와 회복캠프

2020년 1월 첫 주일에는 센터부지 근처에 회관을 빌려 마닐라, 마리키나 전성도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몇 년간 미뤄온 세례식과 선교비전센터가 세워질 곳을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오픈하여 각 셀별로 함께 방문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약 80여명의 성도들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 위에 세워진 마닐라, 마리키나 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주님의 자녀 그리고 교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선교센터부지를 찾아 세워질 센터를 함께 마음에 품고 하루 속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2일 2020년 상반기 리더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자대학 1학기를 시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이미 셀리더로 세워지고 교회의 각 분야에서 섬기고 있는 리더들이 참석하여 마음과 다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참석한 성도들은 아무나 될 수 없는 주님의 제자, 교회의 일꾼으로 불러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부르심을 깨닫고 쓰임 받는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건강한 교회의 셀에 대한 본질에 대한 강의와 현지 간사들의 행복모임 시현을 통해 삶 속에서의 실질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서 2월 29일 회복캠프에 새가족을 수료하고, 양육반에 들어가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수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성도들은 각 강의 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억눌려 있던 죄책감과 각종 상처로부터 자유와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죄와 타협하며 결단하지 못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의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나라의 가치관에 매여 있지 않기로 결심하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하늘나라의 가치에 매여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도전이 한 번의 세례식이나 또는 캠프 하루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와 능력으로 나타나고, 날마다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1,2부 예배 드림, 상반기 양육훈련과 행복모임 시작

저희는 3월부터 좁은 예배 공간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닐라 마리카나 청장년 예배를 1,2부로 나누어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어린이와 청소년 예배가 30분씩 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바쁜 예배 시간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장년들을 혼동하여 예배에 늦거나 빠지지 않도록 담당교사들과 셀리더, 그리고 선교사들 역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일꾼들로 교회가 가득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의 변화와 함께 시작된 주님의 제자를 어깨위에 세우는 양육훈련은 50명, 그리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고 선포하는 행복모임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약 120여 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셀의 셀리더들과 인턴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행복모임 리더로 세워져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결석하지 않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절대능력을 먼저 누리고, 절대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의 복음화, 캠퍼스의 복음화, 직장과 지역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주님의 제자를세우고,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와 센터 건립 Vision.

현지교회는 협소하고 빈약한 공간으로 인해 예배와 양육과 훈련의 인원이 제한을 받고, 인도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위해 관문 도시인 마닐라에 모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 [필리핀두날개교회]의 성장과 [두날개 필리핀선교센터]소식에 현지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의 관심과 코칭사역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가정 5명 그리고 21명의 장단기선교사 총 26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두날개로 날아오르는 행복한 연합선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아웃리치를 통해 1년을 헌신하는 청소년들이 대학생이 되고, 헌신하는 청장년들이 늘어나며, 필리핀 단기 선교사 지원율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매번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저희 [두날개필리핀선교센터]는 [세계비전두날개프로세스]와 [건강한 교회의 8대핵심가치] 그리고 [탁월한 두날개선교전략]을 중심으로 행복한 연합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를 훈련시키는 훈련센터로 다음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차세대를 글로벌 크리스천으로 세우는 두날개천소년 비전캠프
- 청장년을 글로벌 리더로 훈련하는 세계비전두날개프로세스 국제아카데미
- 단기선교사를 탁월한 재생산 일꾼으로 세우는 훈련

이상의 3대 사역 비전을 이루기 위해 두날개선교회를 중심으로 두날개네트워크교회와 함께 센터건립의 비전을 가지고 2018년 두날개네트워크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부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혜로 구입된 토지 위해 교회와 센터건축을 위한 2차 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와 센터건축을 위해 20억이상 물질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급속하게 세속화 되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님의 제자삼고, 필리핀 현지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의 코칭사역을 통해 지역교회와 연합할 수 있도록 교회와 센터 건립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물질 후원에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사랑입니다!!!



함께기도해주세요.

1.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개인, 가정, 교회, 선교센터되게 하소서.
2. 장단기선교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소서.
3. 마닐라 마리끼나 교회를 위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 교회들이 채워지게 하소서.
4. 센터건축을 위한 기도와 재정의 후원이 하루 속히 채워지게 하소서.
5. 지난 9년의 사역기간 동안 김종하선교사 가정의 재정 후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시간이 흐르며 재정후원자들의 형편과 상황으로 재정 후원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김종하 선교사 가정의 재정후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센터건축후원계좌: 기업 196-053841-01-162 예금주 두날개선교회

-김종하선교사후원계좌: 기업 245-043782-04-062 예금주 두날개선교회